

헬로십교회

우리 하나되어

자메이카 단기선교

중국단기선교 - 영어회중
새가족반 수료식 (MD/VA)
제자훈련 수료식
초등부 수양회



우리하나되어

CONTENTS | 2009. 8

- 03 제 66차 새가족반 (VA) - 귀한 하나님의 간섭 - 이선택
- 05 제 67차 새가족반 (MD) - 네 개의 견고한 기둥 외 - 김경숙 외
- 11 선교사 편지 - 냉장고는 냉장고 - 김승봉, 영선 선교사
- 14 세례식 -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 현병철
- 16 제자훈련 - 나를 낮추신 하나님 외 - 권석남 외
- 22 자메이카 단기선교 - 다시 찾은 자메이카 - 이연일
- 27 워크캠프 - 영적인 경험 - Joy Lee
- 28 초등부 수양회 - 나는 슈퍼 히어로 - Stephen Kim
- 32 오아시스 미니스트리 - Deep Creek에서의 오아시스 수양회 - 김성일
- 34 중국단기선교 -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 Jullie Yun
- 41 종족소개 - 부흥의 땅! 카스피창 - 유종우
- 43 맥체인 성경읽기표

표지사진설명
 자메이카 킹스톤의
 맘비팍 유치원
 하루수업을 시작하기전에
 기도하는 예쁜 천사들



헬로십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16



22

(VA 캠퍼스, 2009년 7월 12일)

제 66차 새가족반



(위줄 왼쪽부터) 장형열 장로, 김우성 목사, 양수연 사모, 황제니, 오현주, 권경희, 이선택, 손권호, 박근희, 지용한 장로 , 김은진, 김재훈, 양경옥 목사
(아래줄 왼쪽부터) 배성우, 차경엽, 김원기 목사, 김정미

귀한 하나님의 간섭

글 - 이선택



저는 30여년이 넘도록 교회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저의 집에도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저 선하고, 나름대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집 나간 탕자의 삶, 그것이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2005년 말에 직장에서 호주에 6개월 파견을 나가게 되었을 때, 어릴 적 옆집에 살던 누님 댁에서 한동안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님의 남편은 개척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에 있는 3주 동안 목사님의 일방적인 주입식 성경공부를 매일 8시간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호주에서 돌아올 때에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07년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말라버렸던 눈물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단지 제 아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

버지' 짧은 이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를 그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저는 "주여!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구호를 배웠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어주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저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성경말씀을 믿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 저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한 번은 잔디밭을 맨발로 한 시간 넘게 걸으면서 두 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너무나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저만을 비추는 것 같았고, 잔디와 닿는 발바닥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간섭하시면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죄를 지을 경우 제 마음은 평안 대신 커다란 죄의식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유일한 안식처임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호주로 부르신 일, 이곳 헬로쉽교회로 이끄신 일 등도 모두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즐거운 간섭입니다. 지금 제 신앙은 마치 요람 속에 아기, 또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 잘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며 기도하겠습니다. 



(MD 캠퍼스, 2009년 7월 19일)

제 67차 새가족반



(위줄 왼쪽부터) 이인영 목사, 이유진, 이도철, 류용국, 박상이, 정성혜, 김혜경, 김경숙, 김영준, 박진이, 박정욱
(아래줄 왼쪽부터) 권현숙, 이준혁, 이지아, 김원기 목사, 이정훈, 이진아, 민현주

네개의 견고한 기둥

글 - 김경숙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동시에 연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 함께 모여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집’이라는 공간입니다. 어쩌면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오늘 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제 마음속에 그 집을 짓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리반, 확신반, 목적반, 새가족반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동안 제 마음 속에 그야말로 멋진 집을 한 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된 한우리반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저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긴 앞으로 새가족과 한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한우리반에서 말 때문에 겪은 저의 굴욕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온 첫날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한우리반을 섬기시는 어떤 분이 “왜 그렇게 우셨어요?”라고 물으시기에,

“모르겠어요. 그냥 다 너무 감동적이라서요.” 그랬더니,

“아~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 ‘은혜? 무슨 은혜?’ 그 은혜라는 말이 어찌나 생소하던지...

그리고 그 다음 주쫂, 또 어떤 분이,

“오늘 말씀 좋았죠?”라고 물으시기에,

“네, 믿으시는 분들도 자극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우리는 도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순간 ‘자극’이라는 말이 어찌나 속된 말로 느껴지던지, 항상 써오던 말이었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외에도 ‘돕는다’고 하면 될 것을 ‘섬긴다’고 표현하고, 뭐든지 그게 생각이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은 없는 듯 모든 문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써왔던 표현들이 부끄럽고 부족하게 느껴져서 한동안 교회에서는 정말 말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입이 참 무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와 이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의 언어가 세상에 나가서 겪게 될 시련. 하지만, 그 시련이 즐거운 도전으로 저를 설레게 합니다. 한우리반에 이어진 확신반 수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집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의 초석이 된 건 바로 제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쉽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쉬웠습니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라는 걸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에도 이 부분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장 크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신반 과정 4주 동안 반복되는 구원에 대한 말씀과, 그 무렵 참여했던 요한계시록 강의는 제게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밖에 없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믿음이 진정 죄인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하루하루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 주저 없이 그 믿음을 제 마음속 집의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TOJ'와 성경공부를 통해 받은 은혜는 그 믿음의 초석 위에 네 개의 견고한 기둥을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순종과 겸손과 희생과 사랑이라는 기둥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TOJ'를



통해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운 예배에 어떤 날은 30명도 안 되는 교인이 참석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양을 이끄시는 분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선 30명이 모인 게 아니라 마치 300명, 3000명이 모인 듯 당신들의 열과 성을 다하셨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분들의 열정을 보고, '어떻게 저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 그 마음을 첫 번째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기둥입니다. 전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때로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해야 하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치명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오이코스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오늘도 나 잘난 체 했어?"

그러면, "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몇 번의 금식을 하면서, 혹시 제가 아는 게 있다면 그 지식으로부터 겸손하게 해 주시고, 혹시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그 능력으로부터 겸손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여호수아만을 높였던 갈렙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금식과 새벽기도는 저에게 한없이 겸허한 마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열등감에서 벗어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희생'입니다. 꼭 예수님이라는 모범 정답을 들지 않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동안 참 많은 교인들의 희생을 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을 택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 애쓰는 어떤 자매님의 희생을 봤습니다. 살을 태울 듯 내리쬐는 피약별에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주차장을 보수하기 위해 땀 흘리는 형제님들의 희생을 봤습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대접받을 지위와 나

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편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약간의 오버와 넘치는 열정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의 희생을 봤습니다. 그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무 것도 드릴 것 없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만약 저에게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주시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일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의 기둥입니다. 이 사랑은 물론 받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입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하고 얼마 동안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라 주변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되니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하고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랑 친한 어떤 언니가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글쎄 그 집은 말이야, 아저씨는 모 대학 나온 의사지, 아줌마는 모 대학 나온 약사, 게다가 아들 둘이 척척 박사지, 시간 날 때마다 여행 다니고,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지, 뭐 완벽해. 부족한 게 없어.”

그러기에 제가, “교회 다녀요?”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지 않더라.” “에이, 치명적인 결점이 있구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면에 감춰진 슬픔과 좌절과 죄가 이제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삶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그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네 기둥이 완성되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푸르고 높은 하늘에 닿고 싶은 갈망이 넘쳐납니다. 이제 네 기둥 위에 지붕을 덮어 집을 완성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 하늘로 트인 채로 두고 싶지만 비바람은 막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라는 지붕을 덮어 집을 완성합니다.

확신반에 이어진 목적반 수업은, 삶의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은 거짓투성이였습니다. 거짓 선이었고, 거짓 자유였고, 거짓 행복이었고, 거짓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위선으로는 그 분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 한 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연을 가장했지만, 저는 몸 둘 바를 몰라 허둥졌고, 눈 둘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분에게서 발산되는 거룩한 빛이 제 몸을 에워쌌고, 그 빛속에서 저는 흔적도 없이 묻혔습니다. 한 점의 티도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정결한 분 앞에서 죄인 된 저는 그저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모세처럼.

그 짧은 시간 동안, ‘거룩’이라는 보이지 않는 빛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높은 곳에 있어서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룩함의 정체가 약간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닦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경지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제 마음속 집의 지붕으로 얹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빈틈 없이 튼튼한 집이 완성됐습니다.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 보입니다.

세례를 통해 새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새집까지 주십니다. 순종과 겸손과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제 몸이 거하고 있는 집을 팔고, 땅도 팔아 길 위에서 사는 삶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 마음속 이 집은 절대 허물지 않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길 위의 삶이 되더라도, 제 마음 속에 굳게 지어진 이 거룩한 집을 묵상하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저를 헬로교회에 데려 온 자매님,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첫 오이코스 목사님, 항상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지금의 목사님, 그리고 한 과정, 한 과정, 저를 진리의 길로 이끄신 선생님들과 매번 저만을 위해 설교하시는 듯 도전을 주시는 목사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분들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한 집에서 살게 해 주신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

하나님! 우리 아빠

글 - 이유진



저는 친가, 외가 모두 4대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뿌리가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태 신앙이 ‘못된 신앙’이라는 말처럼, 저의 신앙은 참 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긴 했지만, 그때에는 그저 일요일이면 당연히 그냥 교회에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다녔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주일학교에도 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따라 다니며 졸다 오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입시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나마 졸면 서라도 다니던 교회도 가지 않고 주일에도 오직 학원만 다니는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입시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까지 7년간 내내 입시만 치렀고, 제 삶의 목표는 오직 ‘좋은 대학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해 학창시절의 유일한 목표를 이룩해버리고 나니, 제 삶은 너무나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그림도 더 이상 그리기 싫고, 이것저것 새로운 것도 많이 시도해 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저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학점은 바닥을 치고, 그럴수록 점점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한 죄책

감과 함께 ‘나도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0여 년간 그분을 뒤로 한 저를 그냥 놓아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던 중 2004년 봄, 어머니 친구분의 인도로 새로운 교회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건물의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참 희한한 교회였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빠른 찬양에, 반주를 드럼과 전자 기타가 있는 밴드가 하고, 사람들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파이프 오르간 반주에 맞춰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했던 저는, 처음 보는 광경에 ‘여기 이단인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한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처음으로 예배 중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나도 저들처럼 뜨거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청년교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교구의 지체들은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환하게 웃어주고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삶에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더 많이 아파하며 기도해주고, 기쁠 때는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며 저의 성격도 더 밝게 변해갔습니다.

2005년 가을,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제 머리 속에 어떤 이미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주님 매달리신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



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며 저의 온몸을 감싸고, 땅으로 줄줄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을 믿으며 교만했던 지난날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있던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눈물을 펄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제 온몸을 덮은 주님의 끈적끈적한 보혈은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귀한 피로 저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날 이후 저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로 거듭났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때마다 너무나 시시적절하게 저를 위로해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저 뿐 아니라 온 가정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가정 안에서 서로 받았던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나니 저희 가정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은 저에게 최고의 선물로 제 남편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같이 경험하며 형제를 만났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힘들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니 행복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준 사랑스러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는 교회 향수병(?)에 걸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신랑이 참석하던 교회에 같이 다녔는데, 마음 문이 완전히 닫혀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12월의 첫 주일 아침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긴 했지만, 교회에 가기가 싫어서 저는 고의적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원래 다니던 교회에 가기는 너무 늦었고 해서 신랑이 “여기 헬로쉽교회라고 있는데, 거긴 예배 시간이 좀 늦으니까 거기라도 가자” 해서 부랴부랴 교회로 향했습니다. 헬로쉽교회는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의 부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서 알고는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굉장히 익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온 터라 영어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참 순수한 열정을 가진 교회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날은 또 우연히(당연히 우연은 아니겠지만) 성찬식을 하던 날이었고, 성찬식 중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십자가가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드디어 내 집을 찾아 돌



아온 듯 했고, 저를 또 한 번 붙잡아 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한 달여를 헬로쉽교회와 원래 다니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12월 말, 헬로쉽교회로 옮기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를 위해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준 남편에게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옮기려고 결심하고 나니, 등록을 하는 데만 4개월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가 이리 까다롭나 싶기도 했지만, 교회가 하는 일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차근차근 한 과정씩 들어갔습니다. ‘한우리반’에 이어 확산반, 목적반, 그리고 새가족반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갓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추억해보며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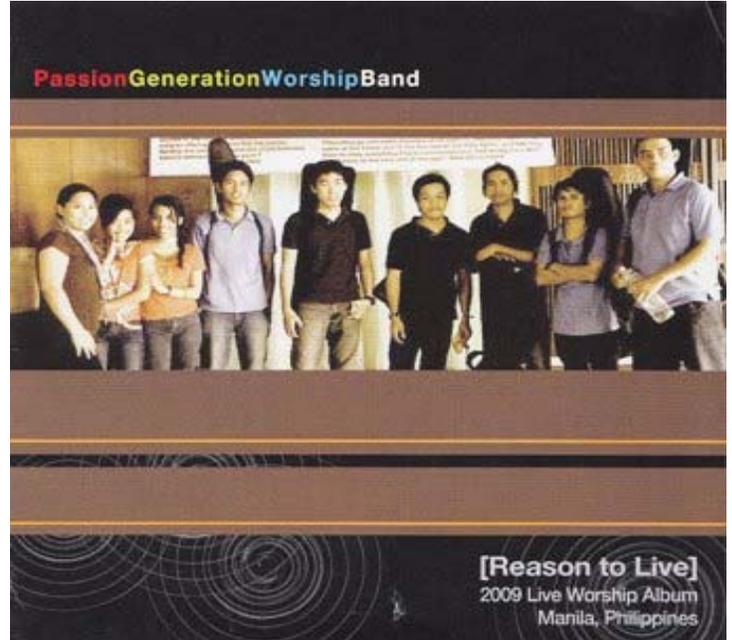
또 헬로쉽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알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신뢰가 쌓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와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에 이름까지 외워서 불러주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신 한우리반 봉사자 분들께 너무 감사했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저희 부부에게 엄마, 아빠, 언니, 오빠가 되어주신 오이코스 식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국에 와서 영적으로 방황하던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된 헬로쉽교회로 인도해주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도자시요, 빛이시요, 돕는 손길이시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

냉장고는 냉장고

글 - 김승봉 선교사

참으로 바쁜 여름 방학을 지내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5월 방학기간을 이번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기적같이 한국행 비자를 받은 10명의 이 지역 젊은이들을 인솔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8명은 'Passion Generation'이라는 찬양팀이었고, 2명은 씨잡 사역의 현지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단기사역자 케빈 선교사의 지도 아래 '따갈록'과 영어 찬양으로 이루어진 "Reason to Live" (삶의 이유)라는 CD도 만들어 여러 교회들과 한동대까지 다녀왔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사마르 섬에 주께서 예비하신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소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전도단의 '경배와 찬양' 모임처럼 지역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한 '화요 찬양의 밤'이 이들을 중심으로 7월 첫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6월 5일에는 저희 동네 긴은 마을의 초등학교 교실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교실 세 개가 필요했는데, 주지사가 하나를 지어주고, 똑같은 비용으로 우리는 교실 두 개를 지어 주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중간에서 부정 축재로 사라지는 비용이 없다보니 같은 비용으로 두 배의 축

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6월 중순 시작한 새 학기에 깨끗하고 잘 정돈된 새 교실에서 학업을 시작하니 기뻐하는 동네아이들을 보며 저희도 함께 기도와 물질로 밀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선교사 코너

글 - 김영선 선교사

드디어 새 냉장고를 구입했다. 그런데 자꾸 후회스러워 맘이 편치를 앓다. 너무 좋은 것을 샀다 하는 부담 때문이다. 이 부담감은 내 소심한 성격과 짝 물려 가끔은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한다. 한마디로 이런 저런 걱정 안하고 부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다. 후원금 대신 내가 번 돈으로 미국서 냉장고를 샀다면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이다.

구입한지 4년 밖에는 안 된 냉장고가 말썽을 부려 이사람 저사람 불러서 거의 백불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겨우 고쳤는데 또 일 년 만에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꼭 아이 우는 소리를 가끔 낸다. 아마 힘에 부쳐 그런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손님을 치루느라 많은 음식이 들어가면 온도 조절도 잘 안되고 끼적끼적 운다.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자던 졸업생 하나는 밤에 냉장고가 노래하는 소리에 잠이 깬다고 한다. 나에겐 우는 소리 같은데 찬양 인도자인 그 아이는 냉장고가 노래를 한다고 했다. “빨리 바뀌야지. 괜히 미적거리다 지난번처럼 단기팀 받기 며칠 전에 냉장고가 말썽을 부리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희 성경학교도 새 학년을 6월 9일에 개강하였습니다. 13명의 신입생이 등록을 해서 총 27명의 학생들이 새 학기에 적응하느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항상 그렇듯이 새벽기도에 맞추어 4시 15분 기상이 제일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한창의 젊음이 들인데다 반찬은 별로 없어도 밥만큼은 배불리 먹게 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쌀이 일주일에 50킬로짜리 두가마인데도 빠듯합니다.

큰 아이 지혜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 놓고 마지막 여름방학을 엄마가 해 주는 음식 먹으며 편히 쉬고 싶습니다. 네 식구가 또 일 년 만에 한 집에 모여 복적거리고, 남편은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는 소리에 아내는 무척이나 행복해합니다. 지난 몇 달도 사역과 삶에 여러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써주시는 주의 은혜와 그 은혜를 불러오는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그저 감사 할 뿐입니다. 🌈

그러다 우리 섬에서 다리 건너 있는 ‘레떼’ 섬 큰 도시인 ‘따끌로반’ 시에 내려갔다 전자제품 가게에 들어 간 것이 원인이 되었다. 삼성 코너에 진열된 제품들을 보고 훌까닥 넘어간 것이다. ‘냉동고가 옆에 달린 냉장고 (side by side door)’를 보고는 눈에 뭔가가 썩인 것이다. 제품안내서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한 두어 달 고민을 했다. 우는 냉장고는 지난 2004년 1월 사택을 센터 안으로 짓고 들어올 때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산 것이다. 당시 또 수술을 하고 선교지로 돌아 간 며느리가 안쓰러우셨는지 냉장고 하나 좋은 거 들여놔라 하신지라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크고 좋다는 냉장고였지만 그래도 작아서 더운 날씨에 큰 손님을 치룰 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더 큰 것을 사야 한다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side by side

door' 냉장고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넘어간 아줌마의 마음을 달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얼마나 멋있게 빠졌는지... 거기다 마음을 홀리는 별별 것들이 이 아줌마를 계속 유혹했다.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앞면의 작은 도어만 잡아당기면 찬 음료수병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음료수 스테이션 등이라는지, 고상하게 은빛이 도는 회색하며 꺼떡하면 내 비위를 거스리는 징징 울보 냉장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멋진 냉장고... 그런데 이럴 때 남편이 “돈 없어. 선교사가 무슨 그렇게 좋은 냉장고가 필요하냐?” 해주면 남편을 원망해가며 이 바람을 쉽게 재울 터인데... 부엌살림만큼은 유난히 나에게 너그러운 남편,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멋진 냉장고에 온통 마음을 빼겨버린 와이프를 부추긴다. 제품안내서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향해 “필요하면 사줄게. 까짓꺼 그거 하나 못 사주겠냐. 아! 그래 결혼 25주년 기념선물이다.” 고민 고민하다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다. 물론 음료수 스테이션이 있는 최고 멋쟁이에게 넘어 갔던 마음은 그래도 돌려 ‘side by side door’ 냉장고 중에 제일 싼 걸로 따끌로반 본점에 주문을 한 것이 우리 동네 분점까지 배달되는데 한 3주가 걸렸고 그 기간 동안 또 나는 고통스러워했다. “여보, 괜히 했나 봐요. 그냥 취소시킬까?” 하지만 계약금을 걸어 놓았으니 그럴 수도 없었다.

드디어 냉장고는 우리 집 부엌에 자리를 잡고, 그 때부터 금지된 사랑을 집 안에 들여 놓은 사람처럼 불안해서 현지인 스태프들이 집에 올라 와서 “와! 언니 냉장고 새로 들여 놓았네요.” 하는 말에, 나는 속으로, “아이고 이 웬수야... 내가 눈이 빠졌지” 하며 머뭇거리고... 눈치 챈 남편이 금방 받아서 “응, 내가 결혼 25주년 기념 선물로 들여 놔 준 거야.”하고 나를 감싸준다.

이 눈치 보는 삶이 가끔은 피곤한 것이다. 가뜰이나 좁은 바닥인데 마트에 가서 아는 교인이라도 만나면 내 장바구니 속에 집어넣은 필요한 수입 품목들을 안보이게 덮어가며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 들의 맘속에 혹시라도 ‘선교사는 돈도 많네. 저런 것도 사고’ 라는 맘이 들까봐서 마트에 갈 때는 되도록이면 스태프나 학생들과 동행하지 않는다. 혹시나 현지인들에게 시험이 될까 해서 눈치, 또 후원금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스스로에게 받는 눈치 등등 피곤하여 그냥 이런저런 눈치 안보고



평범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 사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은 든다.

그런데 이럴 때면 남편에게 맞는 침이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 6:31-32) “그러니까 무엇을 안 먹을까? 무엇을 안 마실까? 무엇을 안 입을까? 이런 걱정도 다 이방인의 걱정이야.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니까 쓸데없는 데 신경 끄고 그냥 감사하면서 잘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냉장고는 내 사랑도 아니요, 내 웬수도 아닌 그저 냉장고일 뿐이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냉장고가 나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주시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무엇을 입힐까? 그런 걱정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하며 마음을 바꾸어본다. 📖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글 - 현병철

19년 동안 이어온 타국생활에서 마음 한 구석에 뭔가 모르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저 부의 축적만이, 또는 내가 하고 싶던 사업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달려온 이민생활이었습니다. 일이 잘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됐겠지’, 잘 안 되면 ‘내가 나태해서 잘 안됐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은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게 자연적인 현상이지, 누가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지?’ 하면서 하룻강아지처럼 살았습니다. 가끔씩 믿음생활을 하는 주변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제각기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생활은 뭔가 자기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는 행동으로 비춰졌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변 분의 권유로 헬로쉽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너무도 친절히 대해 주셔서 처음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오랫동안 찾아온 친구 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체계화된 교육시스템과 한우리 반 사역자 여러 분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고쳐지게 되었고, 항상 가족과 같은 오이코스 모임으로 인하여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한발 한발 주님께 다가가며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3:16)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도록 하셨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24)

김원기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만물 모두가 하나님으로 비롯된 창조물이요, 내 모든 생활이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깨닫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증거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이 풍족해진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깨달으며 항상 감사드리며 살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심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



현병철



Cynthia Park



이선택



차경엽

나를 낫추신 하나님

글 - 권석남



무엇인가에 끌린 듯 - 물론 거기에는 제 의지도 있었지만 - 지난 2년여 동안은 제 생애 처음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 무조건 달음질쳐 온 날들이었습니다. 제자반이 끝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착잡함과 더불어 종강식을 맞게 되었고 김정실 권사님으로부터 “간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땐 진실로 수업시간 중 권사님 말씀에서 깨닫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그런 상황과 그 밖엔 아무 것도 얘기할 것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싫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니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일하는 순간 가슴 속 아니 어딘지 모를 곳에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하는 소리와 더불어 눈물이 펄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듣고 싶어했던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책망하시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즉시 책상으로 가서 펜을 들었습니다.

2007년 여름. 겨울이 길고 몹시 추웠던 메사추세츠에서 너무 뜨거워 타는 듯이 더운 이곳 메릴랜드로 이사해 왔습니다. 단지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살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도 비즈니스도 모두 정리한 채, 이미 대학기숙사에 있는 아들을 제외한 딸과 우리 내외는 6-7시간의 긴 여행을 하였습니다. 대충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남편과 저는 집과 비즈니스를 찾기 시작했고 남편은 동시에 임시 직업도 찾았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찌 그리 희한하게도 미끄러지지...

마침내 제 휴가도 거의 끝나가고 이동된 버지니아에 있는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 전 주에 기독교 신자였던 딸이 한국 교회에 같이 가기를 강력히 소망했습니다. 이사 오기 전부터 딸은 이사가 가면 교회에 같이 가자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까짓 딸 소원 한 번 들어준다는 핑계로 웰로쉽교회에 첫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9일. 그 날은 마침 성찬식이 있던 날. 예배 시작에서부터 성찬식까지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그 해 가을이었는지 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말씀에 대한 굶주림에 가득 차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맥케인, 성경대학,



제자반 (교사: 김정실 권사)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 비즈니스를 찾아주려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주었던 언니로부터 “기도 이제 그만해라.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 다리가 움직여서 너무 피곤하다.” 고 농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언니 내외를 통해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간구하던 집과 비즈니스를 언니 내외를 통해서 찾아주셨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 동시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석남아. 너를 낮추지 않고는 나의 이 선물들을 받을 수 없어’ 하며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입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로 인도한 제 딸에게도 하나님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장학금을 다 받았고, 게다가 알지도 못했던 마이너리티 장학금도 학교에서 덤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먼저 가족들 전도에 노력 중입니다. 저를 전적으로 지원은 해 주지만 같이 동참하기를 꺼리는 남편 그리고 아들, 동생...

언젠가 하나님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김정실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같은 반의 신앙 선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TD... 그러나 그렇게도 간절히 바랐던 성령체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갈증만 심해졌고,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 주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게 하나씩 준비해 놓으신 것을 주고 계셨습니다.

당시 버지니아까지의 출퇴근이 교통 혼잡으로 2시간 이상씩 걸리는 것이 안타까우셨는지 메릴랜드로 일터를 옮겨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우연의 일치라며 그저 행운처럼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투정해 가면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금식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체험은 없었고, 최명식 집사님의 권유로 새벽기도를 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만의 새벽기도. 6주간의 새벽기도는 뭔가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너무 먼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저의 교만과 지독한 욕심을. 아세요?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 들을 수 있을까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대답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제가 새벽기도를 나가는 동안에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니 내외를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는 나의 모습

글 - 장선영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제자훈련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자반 공부와 더불어 주중에는 우리교회 부설학교인 커버넌트 기독교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또 토요일에는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반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덕분에 한 편으로 배우고 한 편으로는 가르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제자반의 말씀 공부 안에서 점검되어지고 또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비판적인 청소년들 앞에서 시험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또 온 몸으로 그것을 살아내도록 환경과 조건까지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 모든 일들이 끝나는 이때에야 더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식만을 얻기를 원한다면 책을 읽어 스스로 배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계시기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가 더 중요한 것이지도 배우고, 또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을 때 격

려를 받기도 하고, 시험을 통하여 제대로 아는지 점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 때 위로해 주고, 다치면 약 발라주고, 싸우면 말리고, 틀리면 고쳐주며 시간을 보내주는 선생님과 관계 속에서 아이가 인격적으로 배우고 영향을 받듯이, 내 안에서 가르치며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서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좀 더 알고 닮아가는 삶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등록은 했지만 내 힘에 벅찬 일들을 해내느라 제자훈련까지는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시작도 않으려고 했던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이끌고 오신 김성호 집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강

조하신 '주재권, 우선순위 그리고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 를 통해 진정 하나님을 이 세상과 나의 삶의 주로 모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서 치루어야 할 대가를 기꺼이 치루기를 원하는가 하는 믿음과 가치의 기준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삶

제자반
교사: 김성호 집사





를 해보니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없는 것을 알겠고, 말씀을 암송해 보니 그 유익을 알겠고, 매일 하려니 경건의 훈련이 힘든 것을 알겠습니다. 좋은 책들을 읽으니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이 보이고, 읽기도 힘든 책을 쓴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부럽고, 그 책들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새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기에 그 아들을 주시고 사랑하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에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기지 않는 이 사실을 믿기에

의 이유와 힘을 가지심을 보여주신 집사님은 ‘바쁘다’라는 핑계로 게을러지는 나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항상 먼저 오셔서 모두가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 정리하시고, 우리를 빠져도 당신은 항상 신실하게 그리고 그 좋은 미소로 그 자리를 지켜주신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서만 아니라 우리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그 몸 즉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같이 공부하는 제자반원들을 통해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눔 속에 묻어 나오는 삶의 이야기와 간증들은 우리의 생김과 성정과 환경과 은사가 달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혼자이기를 더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생명 안에 거하기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열매 안에 있는 씨가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자연의 과정과 같은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이 제자라 부르던 크리스천이라 부르던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사랑에 빚진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김치 공세로 위해 주고 도와주신 오이코스 식구들과 엄마가 숙제할 때 자기들끼리 잘 놀아준 세 아이들과 제자반 수업하는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기다려 준 남편에게 많이 감사합니다. 🙏

좋아하는 나에게 연결되고 그 안에서 자라나야만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끝까지 함께 온 우리 제자반 모두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 만나고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체계를 갖춘 교재로 전반적으로 공부



사역자반
교사: 장승민 목사

하나님께 고백할 그 날을 기다리며

글 - 정성기



김진광 목사님께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간증해라”고 통보를 해 오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 개월 전 김진광 목사님과 한마음 여러 지체들과 함께 성장반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지체들과 함께 일요일의 화창한 날씨를 뒤로 하고서 김진광 목사님 댁에서 목사님의 잘 생긴 두 아들 진우, 선우와도 함께 목사님 댁의 어지러운 거실에서 성장반을 했었습니다. 한 주 그리고 또 한 주, 그리고 매일 이어지는 숙제. 숙제는 한 주에 네 번 이상 큐티와 네 번 15분 이상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맥체인과 성경 암송 구절도 있었구요. 이를 어길 시에는 한 건당 2분의 벌금도 있었습니다. 정말 시작은 좋았습니다. 누가 질세라 기도도 꼬박꼬박 그리고 큐티도 성경 암송 구절도 열심히 하며 엄청난 영적 열정을 과시하며 자신감에 넘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극소수의 지체가 초반에 돈을 많이 낸 것은 기억하지만 누구인지는 이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작이었지만, 한 주 또 그리고 한 주.. 가면 갈 수록 그 넘쳤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들

의 얽었던 영적 깊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처음에 시작했던 “새롭게 태어나리라!” 라고 다짐했던 마음은 잊어버리고 매주 늘어가는 벌금에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면 손을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성경 구절의 반대인 ‘첫 시작은 좋았으나 네 마지막은 심히 고통스러우리라’ 라는 이상한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별로 할 것도 없는 저희들이 바쁘다 바쁘다 하며 교육과정에서 성실함을 보이지 못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가족이 생기면 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장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매일매일 읽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다. 제 모습은 하루에 인터넷을 5시간 이상 하고 밥을 먹고 잠깐 쉬는데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합쳐서 6시간을 쓰고, 전화통화로 한 시간, 잠자는데 7시간, 운전하는데 2시간, 아침 저녁으로 씻는데 2시간, 티비 2시간 등등 벌써 24시간이 되었네요. 주말에 밀린 숙제 하기에 바빴었던 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힘들다는 표현, 참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성경’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누구야 너 몰랐지만 옆집에 사는 사람이 너 때문에 죽었대.’ 제가 답변을 합니다. ‘알고



성장반 (교사: 채미성 집사)



영적 기울기는 더 내려가지 않고 조금 썩어나마 위로 틀어져 가고 있다는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아래로 곤두박질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두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읽어도 제가 사는 데에 제가 생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들었고 매번 읽고 그때 그때 잠깐이었던 저에게도 그나마 약간의 하나님 말씀의 양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량의 양금이 그나마 저를 유지하고 아주 조금씩 자라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멋지게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작게나마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너무 어렵습니다.

있었어. 좀 미안하네.’ 다시 성경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근데 그 사람이 네 부모님보다 더 훌륭하시고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시고 못하시는게 없으시고 말만하면 지구도 은하계도 우주도 네 생명도 있었다 없었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래.’ 제가 또 대답합니다. ‘아 그래? 사실 알고 있었어. 참 죄송하네. 근데 지금 나 좀 바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할게.’ 이 정도의 가벼운 ‘나’가 아니었나 뉘우칩니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성장반을 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 때면 제 속으로는 더 부끄러워졌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기도 15분 하는 것이 조용히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하루 중에 힘든 것인지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제 모습, 아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과정을 마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고 ‘전 변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님도 아시겠죠.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영적 하향곡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아래로 기울어져 가고 있던 저의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선배로 자라나기엔 정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길, 짧은 시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날들이 나중에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 그리고 그 믿음 제 깊이 간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제가 잘 크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장반 (교사: 한기선 집사)



다시 찾은 자메이카

글 - 이연일

가보고 싶은 곳, 또 가고 싶은 땅 자메이카 ‘킹스톤’으로 향하는 학생 12명, 어른 9명 전체 21명의 2009 여름 단기선교 단원들은 5주에 걸친 훈련을 받고 드디어 6월 28일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자메이카로 떠났다. 점심판매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단기 선교자의 자세, 단기선교의 목적, 암송 성경 구절 시편 66편을 과제로 받고 첫 주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나는 왜 단기선교에 지원했는가’ 나름대로의 목적과 자신을 소개를 하고, 공연 할 노래와 율동을 맘홀리며 익혔다. 지난해에 다녀온 9명의 경험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어른 4명, 학생 5명이 포함되었다. 몹시 가난하기에 마음이 거친 땅, 험악한 총성이 오가는 땅, 없는 것이 너무 많아 쟁취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다투는 땅을 찾아 학생들이 또 간다는 것에 내심 고맙고 흐뭇하였다. 만만치 않음을 알면서도 떠나려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같은 질문, 다양한 답

지난 해 준비해서 가져 간 물품을 다 받지 못해 안타까워했는데 후에 알고 보니 세관 담당자들이 일정 기간 보관도 하지 않고 미리 경매에 붙여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가져가는 물품이 흑이라도 분실되거나, 세관 검색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

도했다. 새벽 6시 출발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4시 30분까지 모두 모여 아슬아슬하게 짐을 보내며 정성껏 준비해 준 아침식사를 받아들고 인사를 한 뒤 공항 안으로 걸어갔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움직이니,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무슨 글인가 하는 호기심에 가까이 와서 들여다본다.

드디어 중간 기착지인 아틀랜타를 거쳐 킹스톤에 도착했다. 작년보다 말끔하게 단장된 공항 청사는 마치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듯 깔끔하고 친절하다. 어디서 잘 것이냐는 이민국 직원의 같은 질문에 다양한 답을 거쳐 모두가 빠져나와 가방을 찾느라 기다린다. 드디어 검색대의 까다로움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전원, 전 가방 무사통과로 나왔다. 해맑은 선교사님의 미소와 현지 한인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반긴다. 여전히 푸른 바다를 옆으로 돌아보며 우리가 일주일간 머물 숙소인 갈보리 감리교회에 도착했다. 준비된 김밥을 먹으며 사람도 가방도 모두 무사함에, 수입품인 귀한 재료로 만들어 주신 김밥을 만든 정성에 감사의 기도를 한다.

다용도실에서의 일주일

식당, 부엌, 회의실, 침실, 창고 등 한 방이 시간 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짐을 정리하고 자메이카가



벌레들에게 부패상을

빨간색 체크무늬와 베이지 색의 교복을 입고 머리를 다양하게 땀은 학생들이 교실에 모인다. 반짝이는 눈망울이 우리를 쳐다보며 울동을 배운다. 유들유들 유연한 몸동작은 마이클 잭슨의 서너 살 무렵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한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흩어져서 맡겨진 사역을 한다. 모아진 나무로 작품을 만드는 건물 관리부, 올해 주제인 'Crocodile Dock' 노래와 울동을 가르치는 학생들, 얼굴에 다양한 그림을 그려주며 신나게 웃어주는 학생들, 준비된 재료를 이용하여 공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학생들, 돌아오는 목요일 졸업식 준비하느라 졸업식장을 장식하고 단장하는 여자 어른팀 등 각자 다르게 그러나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아도 더운 날씨에 움직이니 몸은 땀방울이 흐른다. 귀한 땀의 흐름을 아는 지 다양한 벌레들이 와서 우리를 반긴다. 준비된 상차림을 벌레들도 알고 달려드는가 보다. 점심식사를 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웨슬리 교회로 갔다.

낮익은 주민들의 반가움

이 교회는 1896년에 완공된 역사적인 건물로 내부의 유리창은 없고, 천정의 도색은 벗겨졌을지언정 외관은 아주 위엄이 있고 근사하다. 3일간 계속 와서 여름성경학교와 점보 세일을 할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가 온 것을 어찌 알았는지 동네에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 우리를 반갑게 맞는다. 아는 얼굴도 있는데 곱살 맞게 구는 행동이 불과 몇 달 전에 본 아이들처럼 살갑다.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울동을 하며 손에 쥐어지는 작품을 하나씩 받으며 즐거워한다. 예배당 안에서는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밖에 있는 아이들은 준비한 축구공과 어울려 신나게 놀고 이도 저도 아닌 아이들은 주변을 돌며 여기 저기 기웃거린다. 뜨거운 땀방울이 별 다른 놀거리가 없어도 그저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것으로 모두 즐겁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된다는 광고를 하며 집으로 발걸

어떤 나라인가? 국민의 성품은 어떠한가? 내일부터 진행될 사역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듣고 킹스톤에서의 첫 밤을 맞는다. 한 방에서 여자 15명이 누워 자야 하니 벽을 향해 두 줄로 누워 칼잠을 자야했다. 남자들 숙소는 매트리스도 있고 방도 작지만 두 칸이었으나 그렇다고 그곳에 가서 잘 수는 없지 않은가? 두런두런 나누는 얘기 속에 밤은 깊어가고 떨어져있는 화장실 사용 횟수가 줄어들었다.

오전 6시 경건의 시간에 맞춰 모두 기상을 한다. 학생들에게는 늘어지게 누워있을 이른 시간이지만 선교라는 특성이 우리를 해이하게 놔두지 않았다. 학생들과 어른들이 나누어서 돌아가며 맡겨진 날들에 대한 그 날의 찬양과 말씀을 나누고 듣는다. 귀하게 준비된 말씀을 서로 나누며 새벽을 깨운다. 매일 당번도 지정된 순서대로 준비하는데 4명씩 주어진 조의 협동심이 멋지게 움직여 7시에 식사를 한다. 다양하게 준비된 한식과 양식으로 어우러진 식사를 하며 육적인 공급을 받는다. 드디어 우리의 발이 되어 줄 버스가 도착을 하고 8시에 첫 목적지인 맘비팍 유치원으로 향한다.





음을 돌린다. 흘린 땀을 닦고 씻은 뒤 첫 날 평가회를 마치고 밤을 맞는다.

4,5,6,7,8로 시작되는 하루

오늘부터는 더 일찍 하루가 시작되었다. 현지 한인 교회의 새벽예배가 오전 5시에 시작하는데 전원 모두 참석하도록 권면하여 자던 잠을 멈추고 일어나야 했다. 4시에 일어나 최소한 씻고 5시에 새벽예배, 6시에 Q.T, 7시에 식사, 8시 출발하여 오전부터 웨슬리교회에서 사역하는 날이다. 교실 한 편에서는 책상, 의자들을 만들고, 장식장을 만들고, 준비된 다양한 재료로 아이들이 좋아라 할 공작품을 함께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 오후에 있을 전도 겸 여름성경학교 홍보를 하기 위해 서너 명씩 짝을 지어 이웃을 다닌다.

젊은 여자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젊은 남자들은 어찌다 보일 뿐이다. 어린아이들은 어찌나 많은지 나무 밑 그늘에 젊은 엄마들 한사람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오물오물 모여 있다. 대부분 미혼모이거나 또는 남편이 멀리 있어서 무너만 남편인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기쁜 소식도 듣고, 준비한 프로그램을 즐기라고 알려

주며 동네를 돌았다.

드디어 예정된 시간이 오고 남녀노소 교회 문 앞에 장사진을 이룬다. 울려 퍼지는 노래 소리가 동네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흡수한다. 지난해만 해도 예배실 안의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다. 공을 던지고 막대기로 찌르고 싸우느라 악다구니가 오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일이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났는데 올해는 얼마나 성장 발전을 했는지 몇몇을 제외하곤 모두들 자리에 앉아 열심히 경청을 한다. 그리고 배우는 노래마다 따라 부르며 더불어 즐거워한다. 점심 식사는 자메이카 전통 음식으로 골든 에이지 할머니들이 준비해 준 콩밥과 전통 열매인 아끼와 소금에 절인 생선볶음으로 맛있게 먹었다. 정량을 모두 먹고 늘어진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기다리는 어린이들은 우리의 시간을 재촉한다. 뒷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돌아가는 길은 머리에 몸에 나름대로 만든 종이꽃과 나비가 피었다.

아주 무서웠던, 그러나 기다려지는 점보세일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이면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이다. 마당 한편에 ‘문 바운스(Moon bounce)’를 설치하여 태양을 즐기고, 교실이 있는 건물에서는 지역 한인들이 후원한 물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점보세일’을 하는 날이다. 이웃 주민들에게 전도하려 할 때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올해에도 점보세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더 많이 받았는지라 이 날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짐작했던 것보다 더 치열하고 더 살벌하였다. 한꺼번에 많이 몰릴 것이라고 번호를 나눠주기로 하고 스무 명씩 입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상은 벌써 빗나갔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은 장사진을 치고 버스가 들어가자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호표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벌써 지치기 시작했다. 방 별로 가격을 정하고 돈을 받으려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질서도 순서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마음이 몸이 약한 학생들은 눈물을 보이고 경력이





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치루었다. 약 1/3의 물건이 남았을 때는 도저히 상황이 불안하여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놓고 나와야만 했다. 좀 더 있다가는 극한 상황이 발생하고 생명의 위협마저 느낄 것 같은 두려움에. 선교사님은 이렇게 놓고 갈 경우 다른 교회의 기물마저 위험하다며 끝까지 버티셨다. 물건은 힘센 사람들에 의해 나눠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물건을 차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가 진정되기를 바라며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니 질서를 가르치기위해 올해도 위험 감수하고 하셨다는 천사표 조미선 선교사님은 해맑은 미소와 함께 교회 마당에 떨어져 텅구는 쓰레기를 담고 있었다. 모두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바닷가로 갔다. 섬나라인지라 주변이 모두 물이지만 이곳은 썰 그늘은 만들어 놓고 간단한 음식이 있는 ‘hillshire beach’이다.

곤한 몸은 차를 타자마자 잠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내 버스가 도착하고 바다가 보이자 그 간의 끈고함은 사라지고 환호가 터져 나온다. 그리고 기다리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비록 수영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기는 했지만 이 상황에서 의상 가릴 처지는 아니었다. 신나게 물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웃고 떠들다 준비된 식사를 한다. 일상에서 흔히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을 앞에 놓고 짝한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온다. 우리의 주체곡이었던 ‘좋은신 하나님’을 합창한 뒤 기도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발 가득한 모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접시로 물을 끼얹어 대강 털어내고 버스에 오른다. 맘씨 좋은 기사 아저씨는 걱정하지 말라며 편안하게 해준다. 몸도 피곤하고 식후 식곤증에 잠자는 모습이 더 없이 귀하다. 그래도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밤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하루 평가 시간을 갖는다. 피곤하여 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을 끌어 올리

는 모터스위치가 작동을 멈추면서 우리를 황당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정도 쫓아야 우리의 특수 요원들이 있지 않은가? 불편한 시간이 잠시 지나고 이내 다시 고쳐져서 작동을 한다. 놀라운 기술은 모두가 람보와 맥가이버로 보였다.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던 하루를 보내고 옆 공장 가동의 소음에 아랑곳없이 깊은 수면에 빠져든다.

겨자씨 장애기관

새로운 장소인 ‘Sophie’s Place’를 가는 날이다. ‘겨자씨(Mustard Seed)’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후원 기관이 18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킹스톤 기술 대학 내에 있는 것이다. 선교사님 나름대로 연결하여 후원하던 곳인데 올해부터는 단기선교팀에게도 연결되어 이런 저런 다양한 일을 해 달라고 부탁이 왔다. 남자 어른들은 나무 그늘아래 쉬고 앉을 벤치를 만들고 여자 어른들은 무수히 쌓여있는 빨래들을 빨아 널고 학생들은 건물을 페인트로 단장하는 작업이 주어졌다. 페인트 색을 섞고 테이프를 붙이고 하며 진도가 나갔다. 적지 않은 건물이기에 마무리까지는 못하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기를 바랐는데 장한 우리 학생들은 식사 시간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담당자의 놀라움과 고마움을 들으며 우리는 장애인들이 숙소에 오기 전까지 머무는 학교로 갔다.

13명의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열심히 섬긴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적은 관객을 앞에 모시고 그간 배우고 익힌 찬양과 율동을 선보인다. 진지한 율동이고 감동적인 찬양이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도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공연하는 학생들의 눈가에 그렇그렇한 눈물이 단지 동정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 날 밤 정성들여 만든 십자가 목걸이를 상태에 따라 손목이나 목에 걸어 주며 기도하였다. ‘Jesus loves You’라고 하면서.

길지 않은 공연이 끝나고 학생마다 차를 태워 보낸 뒤 우리도 차를 타고 집을 향하여 출발한다. 오늘의 열심과 수고가 오랜 시간 우리의 뇌리에 남아 신앙과 인격 성숙에 큰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짜여진 사역을 모두 마쳤구나 안도할 무렵 한인교회 목사님의 특별 요청이 있었다. 숙소 내에 부족한 전기 스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다. 부족한 재료를 여겨서 구입하여 기술이 필요한 부분의 모든 것을 고쳤다.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야하는 시간까지 갑작스레 끝긴 전기를 연결하고 모든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버스를 탄다.

삶과 사랑을 나누는 일주일

귀한 땀을 흘린 모든 분들의 사랑이 소중한기만 하

다. 일주일 후 딸 둘이 선교에 참여했던 강호태 집사님
택에서 평가회를 가졌다. 그간의 흔적을 담은 사진과
비디오를 감상하고 한마디씩 하는 시간 나의 뇌리에
깊이 머무는 학생의 간증이 있었다. “10년 동안 나는
헬로칩교회를 다녔는데 비로소 내가 헬로칩교회 교인
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도록 편안하고 아름답게 섬겨주신 언니, 오
빠, 친구들,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감사하
며 다음에도 함께 할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
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달

되어 굶어진 것을 펴 수 있고, 차가운 것을 녹일 수 있
는 따뜻한 그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배운 귀한 시간이
였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랑을 나눈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단기선교 참가자: 김모세 목사, 안용신, 전원철, 최
종표, 김명숙, 정수진, 노현옥, 이연일, 이영진, 최미주,
Susan Kwon, Esther Lee, Sarah Shin, Edward
Chung, Andrew Choi, Lauren Kang, Grace Choi,
Rachel Kang, Grace Kim, Michelle Hahm, Katie
Chung. 

"Is there a man among you who would hand his son a stone when he asked for bread?"

July 2, 2009

Missionary Mi sun LEE GH0
K-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19 Surbiton Road
Apt 8
Kingston 10

Dear Friends,

Greetings from Mustard Seed Communities – Sophie's Place

The Children, Directorate, Management and Staff are eternally grateful for continued assistance and love shown to Sophie's Place Children's Home. We cherish your visits and as we operate on a very tight budget, we appreciate your donation of *Time, Talent and Treasure* to our home.

Please be assured of our continuous prayer for your inten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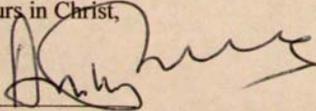
We are finally getting our third cottage re-fitted for the admitting of 8 children in the near future. This will restore our home back to almost its full number of residents, half of whom were displaced after the passage of Tropical Storm Gustav last August.

Pray for us too, during this period of re-development and the 2009 storm season.

Assistant from your organisation in helping us to re-furbish and make outdoor benches, through today's work day is so appreciated. The donations received two weeks ago and now more items supplied by today's group from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in Maryland, USA, is also of great assistance to the home.

May God go with your organization and the group from Maryland and to Pastor Woo and the Korean Calvary Methodist Church here in Kingston, Jamaica.

Yours in Christ,



Anthony Brodber
Administrator

Sophie's Place – 702-1418 (land Line) 388-2460 (A. Brodber)

C.C.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 Maryland, USA



P.O. Box. 267
Kingston 10
Jamaica,
West Indies

Telephone:
(876) 923-6488
(876) 923-2165
(876) 937-2010

Fax:
(876) 923-6000

Email
msec@mustardseed.com

Web Site
<http://www.mustardseed.com>

*An Apostolate of
The Roman Catholic
Archdioceses of
Kingston*

Directors:

(Chairman)
The Most Reverend
Lawrence A. Burke, S.J.,
Archbishop of Kingston

영적인 경험

글 - Joy Lee (8학년)

작년에 워크캠프에서 돌아 온 친구들이 미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과 친구가 된 이야기, 워크캠프에서의 한 주가 얼마나 재미있고 흥분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저도 내년에는 참석해서 친구들과 똑같이 멋진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워크캠프를 떠나기 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워크캠프는 전혀 영적인 경험은 아니고, 단지 펜실바니아의 웨슬리빌(Wesleyville)과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돕게 되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일주일의 워크캠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저의 흥분이 줄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웨슬리빌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우리 방이 정해지지 않아서, 다른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뉴저지에서 온 여자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첫 모임에서 우리는 예배 인도자가 노래 솜씨가 좋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온 아이들은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저는 워크캠프가 친구들이 말했던 것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함께 일하게 될 같은 조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아주 어색해 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 모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워크캠프에서의 한 주가 그렇게 영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우리가 섬겼던 지역 주민인 글로리아는 우리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했지만, 글로리아의 집에 들러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글로리아의 집을 떠날 때 우리는 그녀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로리아는 우리를 굉장히 반겨주었고, 우리가 하는 일에 감사해 했기 때문에, 우리 조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로리아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단 삼 일 동안 우리가 다른 이를 그렇게 크게 도울 수 있는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사진을 많이 찍었고 페이스북에 서로를 추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워크캠프에서의 마지막 날에도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많은 방법들 때문에 워크캠프의 한 주가 진정으로 영적이고 기억할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번역: 오진이>

When my friends had come back from Group Workcamps last year, they shared stories about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how fun and exciting their week had been. After listening to all these stories, I knew that I wanted to come the next year in hope of having the same wonderful experience.

Before leaving for workcamp, the stories that I had heard, had led me to believe that workcamp was not a very spiritual experience, but a week where we would be able to help out the people in Wesleyville, Pennsylvania and various areas surrounding Wesleyville. That didn't stop me from being excited about what the week would bring. When we first arrived at the church, we didn't have a room, so I walked around to the other rooms, making friends with girls from all over Pennsylvania, from Ohio, Michigan, and New Jersey. During our first evening program that night, we found that the worship leader did not have the best voice and that the other churches couldn't clap with the beat. At that point, workcamp didn't seem like what my friends had described. We met the people in our crew, who we would be working with for the whole week. At first, we were all shy and it was very awkward, but as the week progressed, we all became friends. When I thought that the week wouldn't be very spiritual, God was able to reveal himself in many different ways. During our lunch time everyday, our resident, Gloria, would join us for our devotion. On Thursday, we had to move to another site, but we had stopped by Gloria's house to give her a gift. As we were leaving her house, we saw her cry. She had been so welcoming and so appreciative, so the people in my crew couldn't help but also shed a tear. Through helping Gloria, God revealed how in just three days, we could help someone so greatly and build a relationship. On our last day, many pictures were taken and many promises to add each other on Facebook were made. I may not have realized it at the end of the week, but the many ways that God revealed himself made the week truly spiritual and memorable. 

우리 교회의 미래와 현재

글 - Stephanie Kim (카운슬러)

6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3학년에서 5학년에 재학 중인 40여명의 학생들이 2009년 초등부 (Promise land) 수양회에 참석했다. 메릴랜드 캠퍼스와 버지니아 캠퍼스에서 출발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고, 말씀을 듣기 위해 스카이크로프트 수양관에 모였다. 어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보내는 첫 주말이었다. 꽤 공공연하게 수양회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수영장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다른 학생들, 카운슬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카운슬러 중의 한 명으로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온 여학생들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을 담당했고, 시끄럽고 고집 센 10명의 남녀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의 게임과 촌극 준비를 담당 카운슬러와 함께 돕는 특권 (혹은 도전)을 가졌다. 흐린 날씨와 아이들의 툭툭 높은 수다 소리에 때때로 베개에 머리를 묻고 싶었지만 (특히 아침에..) 담당 그룹의 학생들을 알아가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수양회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겁게 보냈다.

수양회의 주제는 “너의 안에 있는 영웅을 깨우라” 였다. 이정식 전도사님은 세 번의 시간에 걸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모두 안에 내재해 있는 놀라운 힘을 어떻게 알아보고 붙잡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셨다. 전도사님은 성경구절을 영화 “The Invincibles”에서의 장면과 결합시켜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를 숨기기 위해 애쓰기 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찾아야 하는지, 세상이 주는

From Friday, June 20 to Sunday, June 22, 2009, forty children from grades 3-5 attended the 2009 Promiseland Retreat. They left from both MD and VA campuses and gathered at the Skycroft Retreat Center for fellowship, fun, the Word, and—for some of them—their first weekend away from home. While some declared quite openly that the part of the retreat they were most anticipating was the swimming pool, they also got a lot of time to get to know one another, their leaders and, most importantly, God.

I was one of those leaders, and I had the privilege (or challenge) of leading a small group of girls from both MD and VA as well as co-leading a loud, opinionated, mixed team of ten in games and skit preparation. While the combination of the gloomy weather and the kids’ high-pitched chatter at times made me want to bury my head in a pillow (especially in the morning...), I really enjoyed my time encouraging, getting to know, and praying for my team.

The theme of the retreat was “Wake Up the Hero In You,” and Pastor Brian Lee taught us in three sessions how to recognize and grasp the incredible power to change the world within all of us that know Jesus as Lord. He mixed Scripture with video clips from the



낙담을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힘 “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셨다. 작고 어리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하거나 쓸모가 덜 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끔씩 알려줘야 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진리를 잊을 수도 있는 카운슬러들에게도...

전체적으로 수양회는 크나 큰 축복이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어린 학생들 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난 수년간 초등부를 섬겨왔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은 이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이다.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통찰력이 있으며, 이해력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가졌다. 이들은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종종 열심히 참여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티모시 처럼 3부 영여 예배에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잊기 쉬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초등부 학생들은 유아부 학생들보다 더 독립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은 사실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이기도 하다.

올해 수양회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더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양회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과 토요일 밤에 있었던 마지막 시간에 더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비전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집을 떠날 때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

<번역: 오진이>

movie The Incredibles to help us learn how to embrace our identity in Christ rather than try to hide who we really are, reject the discouragement of the world, practice using our God-given “powers” and let the Holy Spirit be our guide. It was a great lesson for the children, who sometimes need to be reminded that being smaller or younger does not mean being weaker or less effective in the kingdom of God, and even for the leaders—who might forget the same truths as we live our daily lives.

Overall, the weekend was an incredible blessing... and not just for the kids. I have been working with Promiseland for several years now, and one thing that always strikes me about elementary school kids is how much they have to offer to the church body. They are some of the most perceptive, receptive, and open-hearted people I’ve ever met. They’re smart, gifted, and often eager to participate. While it might be easy for the rest of us to lose sight of them as they are not visible in our worship services like the youth group but they are more independent than the preschoolers, the truth is that God is at work among the children, just as He is at work among us. They are not only the future of our church family, but they are also its present. My one regret about the retreat this year was that there were not more kids signed up to receive those blessings or more parents who stopped by on Saturday night to pray and participate in the final session. I hope that next year, we can all catch that vision and keep the kids in our prayers as they leave home to experience God! 🇺🇸



나는 슈퍼 히어로

글 - Stephen Kim (5학년, VA)

초등부 수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밴을 타고 가면서, 저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스카이크로포트 수양관에 다시 간다는 사실에 너무도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스카이크로포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예배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공예시간과 촌극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단체 게임을 했고, 이정식 전도사님이 세 번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전에 갔었던 다른 어린이 수양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슈퍼 히어로가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수양회를 가기 전에는 저는 제가 슈퍼 히어로 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 히어로란 "The Incredible"과 같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초인의 힘과 스피드를 가진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When I was riding on our church van on the way to this year's children's retreat, I was very excited to be able to see my friends and excited to go to Skycroft again. When we started worshipping God, I felt happy to be in Skycroft, praising God. After worshipping God, we got into small groups and participated in crafts and skits. Then we had a fun team building activity and then had 3 sessions with Pastor Brian. It was almost like any other children's retreats I went to before. The difference was that this time this retreat was where we learned that we are a superhero inside.

Before I went to the children's retreat, I didn't think that I was a superhero because I visualized a superhero as someone who has super-powers, like characters in a movie, like The Incredible, with super-strength or super-speed. I just thought of myself as an ordinary person. Of course, I always thought of myself special because I'm a child of God, but I didn't think I was a special child of God because I didn't have those powers. Since there was nothing that I have that is special, I didn't think of myself as a special person or a "superhero".

Throughout the retreat, Pastor Brian talked to us about how we are superheroes inside and we should find it inside us. How I visualized myself changed from thinking of myself as an ordinary boy into an extraordinary person. Through Pastor Brian, God told me that I AM a superhero and I had to "wake up the superhero in me."

After going to this year children's retreat and learning how I am a superhero, I thought what type of superheroes I want to be... like the Incredible, Superman,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초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자신을 특별한 사람 혹은 “수퍼 히어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양회 동안 이정식 전도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퍼 히어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신을 평범한 남자 아이로 마음 속에 그렸었는데 이제는 비범한 사람으로 그리게 됐습니다. 이정식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수퍼 히어로”이며 “제 안에 있는 수퍼 히어로를 깨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초등부 수양회를 다녀오고 어떻게 하면 제가 수퍼 히어로가 되는 지를 배우고 난 뒤,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인빈서블, 수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등과 같은 수퍼 히어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종류의 수퍼 히어로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안에 있는 수퍼 히어로를 찾고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지금도 저는 예전과는 다른 저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 안에 특별한 능력을 지닌, 수퍼 히어로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제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계획하신 일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더 이상 저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으로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모두 수퍼 히어로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히어로를 깨우면 됩니다. 🇺🇸



Spiderman, Batman or something else. But I didn't know what I have inside.... Then I learned what type of superheroes was not that important. The main thing is I tried to find and wake up the superhero in me so that I can be a better child of God and a powerful soldier of God. Even right now I feel more different than before because I do not think of myself as an ordinary person, but a person with a superhero with special powers inside. I can do anything because the Holy Spirit is in me and gives me power. I feel like I can do anything that God has planned for me. So now I don't feel like I'm an ordinary person anymore. I feel more like a soldier ready to serve God. Each of us is a superhero because the Holy Spirit is in us. We just need to wake up the hero in us. 🇺🇸

Deep Creek에서의 오아시스 수양회

글 - 김성일

6월 26일(금) - 28일(일)까지 지낸 오아시스 수양회에 참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이번 오아시스 여름 수양회를 위해 장소를 물색하느라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신묘막측하다는 걸 느낍니다.

먼저 교회에서 이인영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마친 후 첫 번째 팀이 교회 밴으로 출발을 했고, 그 뒤를 이어 저희 가족은 이른 오후에 출발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보기

힘든 산등성이를 굽이굽이 타고 가다 보니 메릴랜드 북서쪽 끝자락 부분에 있는 목적지인 딥 크릭 (Deep Creek)의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앉은 통나무집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먼저 도착한 일행들이 이미 저녁 준비를 마치고 저희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집안 구경을 하였는데 아무 것도 필요 없을 만큼 오락시설이며 가전제품 그리고 부엌시설 등등 휴가를 보내기엔 너무나도 좋은 집을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제각각 당구와 게임 등을 즐기며 놀 때, 어른들은 잠깐의 담소를 나눈 후, 첫날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인영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날 때부터 소경

된 자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희에게 서로 돕고 사랑하라고 지체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2박 3일의 여행도 서로 더 깊게 알고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신준 집사님 일행이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도착하셨는데 밤늦게 첫 행선지에 무사히 도착하셨음을 기뻐하며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들 여행길에 피곤하였는지 아이들은 곤한 잠이 깊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몇몇 어른들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이마리아 사모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계획을 준비하시고 위

낙 부지런한 영환이와 엘리사가 아침상을 차리느라 분주합니다. 다 차리고 나니 아이들이 하나 둘 일어나 아침을 먹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어스틴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지 좀 느슨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짜증을 부리는 바람에, 이층으로 올라가 다시 좋아하는 DVD를 틀어 주고 나 또한 귀로만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목사님은 오후에 있는 개업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아침에 출발하시고, 우리는 토요일

하루를 즐기
위하여 ‘폰툰 배
(pontoon boat)’
를 타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상
아가 아직 잠에
서 깨어나지 못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일행이 먼
저 보트를 타기
위해 교회 밴으
로 움직였습니다.
보기보다 겁이
많은 어스틴은
나한테 딱 달라



붙어 떨어질 줄 모르고 다른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나서
보트에서 묘기를 부리는 등, 다른 이들이 수상 스키 타
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며 호숫가 주위 경치
를 감상하였습니다. 그곳은 산 중턱에 위치해서인지
여름답지 않게 사뭇 바람이 차가와 외투를 입고 나오
길 잘했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타다 보니 다른 팀도 제한 시간 안에 타야
하므로 교대를 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
아가 잠이 들었을 때 머리를 째는다고 상아 어머니를
비롯해 여러 어른들이 다 달려들어 상아 머리를 째는
데 힘들었는지 한 바탕 상아머리 이야기를 늘어 놓으
셨습니다. 점심은 맛있는 냉면과 갈비정식으로 포식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남은 열기로 다음 일정대
로 미니 골프를 하러 나가고, 두 번째 팀인 상아와 애
진이 그룹이 배를 재미있게 타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의 하이라이트
바비큐 콩치. 다
들 콩치 한 마리
씩 들고 폼들을
잡으며 기념사
진을 한 컷씩 찍
었습니다. 맛있
는 저녁을 먹고
나서, 내가 내일
주일 제자훈련
수업에 참석해
야 하므로 전체
사진 촬영을 시
작하였는데, 우

리 아이들이 포즈를 취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진땀
을 흘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우
리 가족은 출발해야만 하기에 큰 애만 남겨놓고 집으
로 돌아보니 밤 12시가 조금 못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에 피곤이 가지지 않은 몸으로 무
사히 제자훈련 시험을 다 치루고 나니 김명희 집사님
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아이들과 함께 청소와 마무리
잘하고 그곳 가까운 곳에서 점심 피크닉을 즐기고 내
려오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아시스 여름
수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과 각
각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생각하여 보니 ‘우리가 주안
에서 기뻐하며 즐길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서는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주께서 우리
를 사랑함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글 - Jullie Yun

지난 5월 30일 토요일, 우리는 덜레스 공항을 떠나 엘에이, 인천을 경유하여 우리의 종착지인 중국 대련에 도착했다. 대련에 도착하자 외국인인 우리 일행은 체온을 재기 위해 검역소에 보내졌다. 많은 외국인들이 격리되었고 우리는 팀원 모두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중국정부에 의한 긴 입국절차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자 두 명의 YWAM 스태프가 우리를 맞이했다. 대련의 첫 인상은 많은 대조점이 존재하는 도시였다. 비싼 차들이 다니는가 하면 텅 빈 빌딩들이 있고, 노점들과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함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JHOPE (Jesus House of Prayer for Everyone)라고 불리는 숙소 겸 선교기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팀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We left from Dulles Airport on Saturday May 30 headed towards LAX then Seoul Incheon airport, to our final destination of Dalian, China. When we arrived at Dalian, we were all sent to the quarantine station where our temperatures were taken since we were foreigners. Many foreigners are sent away to be quarantined but we prayed that everyone from the team would pass the inspection. After a long process of getting cleared by the Chinese government we exited the airport and were greeted by two YWAM staff members. Our first impression of Dalian was that the city has many contrasts: there were expensive cars, unoccupied buildings, street markets, beautiful ocean views, and many people.

We arrived at our housing area and ministry base,



대련



Momma Kay가 운영하는 고아원



지하교회의 성경공부

우리의 기지가 될 그 집을 축복하였다. 기지 책임자는 JHOPE, 중국 정부 시스템, 대련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했다. 시차로 인해 팀원들이 곧 지쳤기 때문에 많은 휴식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 아침, 목상시간을 가진 뒤, 우리는 마우이 DTS팀과 함께 기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산으로 기도 산책을 나갔다. 산꼭대기에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선교사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의 팀 멤버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을 어려워했다.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폐쇄국가이다. 그날 오후에 우리는 버스로 도시를 구경했다. 기억에 남을 만한 구경거리 중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공 광장인 썩하이 광장, 오래된 교회 건물에 자리한 쉐네티 키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대련 시청이 있었다. 우리는 각 장소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대련과 중국에 대한 부담을 주시기 시작했다.

사역이 시작되는 첫 날, 수요일 아침. 목상시간 중, 인도자인 김경봉 장로님께서 선교훈련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지역 고아원을 우리가 가야하는지 기도하자고 하셨다. 기도 시간과 그 뒤의 나눴던 시간 동안,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우리가 중국에 있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의 영에 대항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에 고아원 방문보다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끄셨다. 나중에 우리는 고아원이 H1N1(신종플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which we called JHOPE (Jesus House of Prayer for Everyone). There we gathered as a team to then pray and worship and bless the house, which would become our home base. The director of that base then gave us a quick orientation about the organization, Chinese church system, and the city of Dalian. Jetlag quickly overcame the team, so there was a lot of time to rest our bodies.

The next morning, after team devotionals, we went for a prayer walk with the Maui DTS team up on a mountain about 10 minutes from our base. On top of the mountain we interceded over the Chinese people, the political leaders, missionaries, and the church system. We could definitely sense the spirit of fear and doubt. The majority of the team members felt that it was hard to pray and sing out loud because of the fear of the Chinese government. Unlike America, China is a closed country where religious freedom is not guaranteed. Later that afternoon, we took a bus tour of the city. Among the memorable sights were Xinghai Square, the largest public square in Asia, a Kentucky Fried Chicken which was housed in an old church building, and Dalian City Hall. We prayed as we visited each site- God began to burden our hearts for Dalian and for China.

Wednesday morning was our first day of ministry. During team devotion time, Elder Neil asked us to pray if we should visit the local orphanage, which had been on our hearts since the beginning of training. During the prayer time and subsequent sharing time, the team had on our hearts to pray for compassion for the Chinese people, our purpose for being in China, stepping out of our comfort zones and against the spirit of fear and doubt among us. However, God led

그 뒤 며칠간 우리는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져서 여러 대학을 방문하여 중국 학생들과 사귀게 되었다. 중국 학생들의 열린 마음과 환영에 우리는 놀랐다. 중국 학생들은 원어민과 영어를 굉장히 연습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과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중국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음에 만날 약속 시간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는 영어 코너였다. 도시의 여러 곳에서 중국학생들은 영어 대화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모였다. 이 영어 코너에서 우리는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사귄 수 있었다.

YWAM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현지 스태프들, 여러 YWAM DTS 팀, 단기선교팀들로 구성된 모임을 주최했다.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중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특권이었다. 우리는 또 대련에서 사역하는 헬로쉽교회의 한어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영어권에서 파송한 YWAM 코나의 원종호 선교사님, 김 벤 선교사님을 만났다.

금요일에 우리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삼자교회 영어교제’라고 불리는 교회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 그곳의 분위기는 매우 제한되고 딱딱했다.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 이 모임에는 학생들과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모임 후에 그룹 토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여러 그룹으로 흩어져서 삼자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토의 질문들을 다루는지 들었다. 어떤 팀원들은 그룹 안에서 독자적으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펼치는 기회를 잡기도 했다.

토요일에 우리는 지역 대학에서 스포츠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낙담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캠퍼스에 있는 새로운 학생들을 만났고, JHOPE에서 주최하는 ‘영어 코너’

the team to focus more on public evangelism and relationship building rather than orphanage visits that week. Later on, this was confirmed as we found out that the orphanages were not accepting foreign visitors due to H1N1 concerns.

Over the next few days, we split up into teams and visited several universities to make friends with Chinese students. The team was amazed by the open and welcoming spirit of the students. They were so eager to practice English with native speakers, so it was a very natural open door to start friendships. We build relationships with them and scheduled follow-up visits. Another platform to naturally meet students was English Corner. At various places in the city, Chinese people gathered to practice English conversational skills. A lot of friendships were started and developed at English Corners.

The YWAM organization hosts a weekly Thursday night gathering comprised of national staff, various YWAM DTS teams, and other short term mission teams. It was such a privilege to lift up the name of Jesus in China with these various groups. We were also joined by NCFC KC missionaries stationed in Dalian, and EC missionaries Chong Ho Won and Ben Kim, of YWAM Kona.

On Friday, we visited a government run church Bible study, called Three Self Church English fellowship. The atmosphere there was very restrictive and dry. The people that led the fellowship were not trained Pastors, but lay leaders. Many people attended this meeting, including students and foreigners. There was time for group discussion afterwards, and many of our team members split up into various groups to hear how the Three self church leaders led the discussion questions. Some of us were in groups by our-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십자가 광장



국제교회

에 그들을 초대했다. ‘영어 코너’에서는 마우이팀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중국학생들이 은근하게 영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영어 노래를 번역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주에 사귄 많은 중국학생들이 ‘영어 코너’에 왔다. 우리 모임에 적어도 공산당 한 명이 참석해있다고 생각했는데, 팀원 중의 한 명이 우리팀과 우리가 온 목적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있으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날 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느꼈고 모두 그것으로 인해 감사했다.

일요일, 우리는 중국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중국교회에 갈 수 있었는데, 그 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비록 중국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어서 우리 팀은 물론 모든 중국 기독교인들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꼈다. 불법 교회였지만 중국 교인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플로리다에서 온 한인인 이끄는 국제 교회에 갔다. 예배는 아주 현대적인 예배였고, 여러 나라에서 온 150-200명의 교인들이 있었다. 이 교회에서 제일 압권이었던 장면은 사람들이 한 찬양을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함께 부르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며 찬양을 할 때, 마치 천국의 광경을 보는 것 같았다. 예배가 끝난 뒤, 우리는 중산 공공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주민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몇몇 팀 멤버들은 흥미를 끌 만한 요란한 게임을 하기로 했고, 마침내 주민들도 함께 게임을 하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바디워ships 하는 것을 꽤 망설였었지만,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내내 기도를 하면서 모여든 주민들을 위해 바디워ships

selves and we got the opportunity to minister to local students.

Saturday, we had sports ministry at a local university, which caused a lot of frustration because of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However, we took this opportunity to meet new students around the campus and invited them to an English Corner which was hosted by the JHOPE ministry. At the English Corner, the Maui team led ice breakers, and we broke up into groups and helped the Chinese students interpret a song with a subtle spiritual message that was written in English. Many of our newly developed friends we met that week came to English Corner. We also believe there

was at least one Communist party insider present at the gathering. One of our members was asked a series of pointed questions about our team and our intentions. This served as a wake-up call for us that we were really in Communist China and we need to be on our

guard! However, we really felt that God was moving that night and we were grateful for that.

On Sunday, we had the opportunity to go to an unregistered Chinese church. This was such a blessing because even though we didn't understand the language, or the words they were singing, the presence of the spirit was so strong in that room, we felt him moving through all those Chinese Christians as well as our team. They weren't afraid to praise the Lord even though they are an illegal church in the city. Afterwards, we went to an international church, which was led by Korean Americans from Florida. This service was very contemporary and there was about 150-200 people from many different nations. The highlight of



압록강에서 본 북한

했다. 어떤 주민들은 바디워십의 동작을 배워보고 싶어 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광장에서는 또 다른 ‘영어 코너’가 시작되어 나머지 팀 멤버들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도우러 갔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했던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중산 광장은 감시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계셨다.

중국에서는 법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은 어떤 종교 교육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의 중국 사역은 대부분 이제 막 18세가 되었거나 18세 이상인 대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고아들에 대해 아주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대련에서 우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한 고아원을 방문할 수 있었다. 카톨릭 신자인 고아원 관리인은 우리가 고아원 안에서 바디워십, 어린이 찬양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게 해 주었다. 보답으로 아이들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자기들이 만든 바디워십을 보여주었다. 어린이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찬양과 바디워십을 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복음을 위해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란다.

다음 화요일,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도시인 단동을 향해 떠났다. 단동은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북한 선교사들을 위한 매우 전략적인 도시가 되었다. 단동으로 떠나기 전 우리는 이 여행이 가장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동으로 들어서자 대련의 환영하는 분위기와 달리 음침하고 어두운 분위기였다. 우리가 머무는 아파트에서는 북한이 보였고 우리는 매일 아침 총소리와 대포소리에 잠이 깼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 중에서도 우리는 단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동에 도착한 첫 날 우리가 방문했던 고아원에



삼자교회

this visit is that we sang one song in English, Chinese, and Korean, and it felt like a glimpse of heaven when everyone was singing in one voice in unison to God. After our church services, our team went to Zhongshan square, where we did our public square evangelism. In order to gather attention from locals, some team members decided to play some games, that were fun and loud, and eventually locals wanted to join. Then, we actually performed body worship for them even though we were very hesitant at first, we prayed through this insecurity and some locals wanted to even learn the moves. Meanwhile, another English Corner was started in the square so the rest of the team went

to help teach English. What we feared the most, turned out to be a very successful ministry day, later on we found out that that square is known for its very high security, so God was completely watching over us. In China, there is a law that no one under the age of 18 is allowed to receive any religious teachings. So therefore our ministries in

China mostly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who just recently turned 18 and up. However, before we left for this trip, our team has a huge heart for the orphans. In Dalian, we were able to visit one orphanage that was privately owned, and the manager was Catholic. She invited us in and we were allowed to do body worship, children's praise songs, and play with the children. They in return sang to us, and did their own version of body worship. So even though it may be illegal for children to be preached to, they all individually chose to do these things for us, and hopefully they will have an open heart for the gospel one day.

We left for a border city of China and North Korean called Dandong, the next Tuesday. This city is very strategically placed for North Korean missionaries due to its location. Before we left for this city, our

도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Momma Kay를 만날 수 있었다. Momma Kay는 육체적, 정신적인 결함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자신의 고아원에 받아들였다. Momma Kay 자신이 아이들에게 직접 영적인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당국에 잡히거나 문체에 얽히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단기선교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상대로 사역을 펼친다. Momma Kay는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르치고, 순수하게 사랑을 베풀으로써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다.

우리의 마지막 선교여행지인 단동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중국을 섬기고 중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보내신 것 뿐 만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보내심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 피난민과 그 피난민들을 위한 사역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주신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보여주셨다. 선교사님은 전염병에 걸린 탓에 잠깐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이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듭난 죄수에 대해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다. 우리는 이 죄수를 위해 YWAM의 기도방식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수를 위해 물질적인 후원을 하도록 인도하심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죄수가 감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셨다.

단동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지하 성경 신학교를 방문한 일이다. 지하 신학교는 낮에는 농업학교로 되어있다. 학생들을 위해 바디워시를 한 후,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열정적이고 강력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중국의 여러 지역, 심지어 북한으로도 보내질 이 젊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team knew that this part of our trip would be the hardest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When you enter the city, it seemed gloomy, dark and not as welcoming as Dalian. Our apartment overlooked North Korea, and every morning we would wake up to gun shots and cannon shots. Even through all these negative things, we could clearly see God moving in this City. His presence was at an orphanage we visited the first day of our trip to Dandong. There we met a true servant of God, named Momma Kay, who takes in these children,

most of whom were rejected from the government orphanages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Even though she cannot spiritually minister to these children herself, many short term missionaries come and minister to them, because they would be able to come and minister without getting caught or in trouble by the government. Momma Kay takes care of these children by cooking, cleaning, teaching, and purely loving them. She knows that God provides for these children and for her, she is a true humble servant of God. Dandong, for our team was a last minute trip, but a very vital part, because here we realized that God was showing us that he sent us here not only to serve and pray over China, but North Korea as well. He showed us a glimpse of His heart for North Korea by sending a Missionary who shared

his testimony about North Korean refugees and how they work in his ministry. He shared a touching testimony about a prisoner who was saved, but now had to return to prison because he was released due to an infectious disease, we prayed over this man using YWAM style prayer and asking God how we can help. We all felt that God was leading us to give monetary support to the man in prison, so we contributed financial donations, and in the end God raised more than enough to get him out of prison.

One highlight of our trip to Dandong was a visit to an underground Bible seminary which was masked as



단동

학생들로부터 기도를 받는 것은 큰 영광이었고, 우리를 겸허하게 했다. 이 젊은 학생들 중에는 미래에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하게 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또한 북한 국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중국의 만리장성의 한 부분을 오를 기회가 있었다.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 우리는 중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했다. 그 뒤에 우리는 중국 동북지역의 국경이 되는 압록강에서 배를 탔다. 배에서 우리는 경비를 서고 있는 북한 군인들과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선전 간판들을 볼 수 있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해 우리의 비전을 넓혀주신 놀랍고 가슴 아픈 날이었다. 우리는 그 날 하나님께서 중국 뿐 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자 우리를 단둥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았다.

북한과 단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대련으로 돌아왔다. 이번 단기 선교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 기회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흥분케 한다. 우리는 헬로쉽교회가 이 비전의 한 부분이 되도록 계속 기도할 것이다. 대련에 도착한 우리는 새 중국 친구들과 그 곳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다. 마지막 날 밤에 성령님께서 각 멤버들과 함께 하셔서 어떤 멤버들은 복음을 전하고 중국어 성경을 건네줄 기회도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씨가 뿌려졌고, 어떤 씨에는 물이 뿌려졌고, 어떤 씨는 심지어 자라서 추수도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더 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는 기대치도 않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에 우리는 그 분 앞에 낮아져서 감사드린다. 중국 단기선교는 우리 팀을 위한 비전 여행이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헬로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다. 



‘영어코너’에서 만난 중국학생들

<번역: 오진이>

an agricultural school by day. After we performed the body worship for the students, we shared an intensely powerful time of prayer. It was so humbling and such a privilege to pray for and receive prayer from these young students who will be sent to various parts of China and even possibly North Korea to do God’s work. Some of these young believers may face persecution, torture, or even martyrdom in the future.

We also had the opportunity to trek up a section of the Great Wall of China which overlooked the North Korean border. At the highest overlook tower, our team had the opportunity to pray over China and North Korea. A little later on that day, we also took a boat ride on the Yalu River, which forms part of the border in Northeast China. From the boat, we could see North Korean soldiers keeping guard and various propaganda signs praising the name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It was a fascinating, yet heartbreaking day where God expanded our vision for NK. We realized that day that God sent us to Dandong to burden our hearts for NK as well as China.

We returned to Dalian, with heavy hearts and a greater vision for all that He has been doing in NK and Dandong. We are excited for His plans for ministry opportunities that were shown during

this trip. We will continue to pray if NCFC is part of this vision. When we arrived back in Dalian, many members met with their new Chinese friends one last time before we left. On our last night of ministry, the Spirit was with each of these members and some had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gospel and to hand out Chinese bibles. By the grace of God, some seeds were planted, some were watered, and some were even harvested. We return to America, with bigger dreams for China and North Korea than we ever imagined, humbled and grateful that God had revealed himself to us in so many unexpected ways. China was a vision trip for our team, and since our return we are still praying to seek and hear God’s plans for us as well as for NCFC. 

부흥의 땅! 카스피창 (Caspian Window)

4세기 경부터 기독교를 접하기 시작한 카스피창은 7세기에 이슬람이 유입되었으나, 당시엔 큰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7세기말 러시아의 남하정책 사상에 대해 이슬람 귀족을 중심으로 대항하게 되면서부터 이들은 급격히 이슬람화 되어 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으로 기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조성되었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고 있습니다.

글, 정리 - 유종우

러시아의 서남부, 유럽의 최고봉인 엘부르스산, 바다라고 불릴 만큼 광활하고 아름다운 호수 카스피해, 카프카즈 산맥에서 시작된 수 많은 강과 강으로부터 형성된 비옥한 토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여전히 가득한 땅으로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될 만큼 매우 아름다운 곳, 장수촌으로도 알려진 이곳을 우리는 ‘카스피 창 (Caspian Window)’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서남쪽에 있는 ‘카스피 창(Caspian window)’은 흑해와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솟아있는 ‘카프카스(영어: 코카서스, Caucasus)’ 산맥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곳에는 러시아의 7개 자치공화국 (다게스탄, 체첸, 잉귀셰티아, 북오세티야, 까바르디노발카리아, 까라차예바체르케시아, 아디게이), 170여개의 민족, 665여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아랍의 다리인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카스피창에서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기독교와, 러시아 정교회 및 이슬람이 만나 민족 분쟁과 영적 충돌이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8-19세기에 일어난 러시아와의 카프카스 전쟁에서 카프카스 민족이 패배한 후, 본토를 떠나 터키, 시리아, 요르단, 및 유럽으로 ‘디아스포라’가 된 이들은 현재 약 400여만명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스탈린은 카프카스 민족들이 독립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첸, 잉귀시, 발카르, 까라차이 민족들을 중앙 아시아에 강제 이주 시키도록 지시했는데, 이 때 각 민족의 절반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1957년 이후, 이들이 다시 귀환했으나 영토 문제로 민족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스피 창’에 해당하는 나라들

4세기 경부터 기독교를 접하기 시작한 카스피창은 7세기에 이슬람이 유입되었으나, 당시엔 큰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7세기말 러시아의 남하정책 사상에 대해 이슬람 귀족을 중심으로 대항하게 되면서부터 이들은 급격히 이슬람화 되어 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감으로 기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조성되었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고 있습니다.

카스피창은 친구가 필요해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카스피창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카스피창은 전쟁과 테러의 이미지를 벗고, 하늘 나라의 평화를 향해 달려가는 새시대가 열렸습니다.

- (1) 전쟁과 테러를 이끄는 이슬람 과격 단체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감 증대 및 단체의 와해
- (2) 소치의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
- (3) 카스피창의 동부 (다게스탄)와 서부를 있는 동서대로 (체첸을 통과) 재개통 등의 육적인 변화와 함께 복음에 반응하는 많은 현지 영혼들, 선교의 비전을 품어가는 현지의 복음적인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직접 카스피창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카스피창에 속한 곳들에 대해 알아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카스피창을 소망의 땅, 부흥의 땅, 희망의 땅, 빛의 땅으로 선포하여 주세요!

함께 기도해주세요!

(1) 씨를 뿌림과 동시 추수하는 이땅을 위해 강력한 중보기도자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과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할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이땅을 섬길 수 있도록

(2) 2010-2000 (이공일공 이천, 2010년까지 2000명의 장단기 사역자가 이땅을 섬기는 것)의 비전을 통해 이땅에 현지인 리더쉽에 의한 폭발적인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다게스탄

인구 257만
30%의 다게스탄인과 40개의 민족이 거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체첸

인구 110만 93%의 체첸인과 3%의 러시아.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잉귀쉬

인구 46만 77%의 잉귀쉬인과 23%의 체첸인.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으며 특히 이 나라는
정교회를 믿는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이며
이슬람교를 더 강조하고 있다.



북오세티아

인구 71만 62%의 오세트인과 23%의 러시아인의
14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
오세티아인들은 대부분 정교를 믿고 있다.



까바르딘 발카르

인구 90만 55%의 까바르딘인, 25%의 러시아인과
11%의 발카르인의 1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
까바르딘인과 발카르인 모두 이슬람을 믿고있다.



까라차이 체르케스

인구 44만 38%의 까라차이인, 33%의 러시아인과
11%의 체르케스인의 9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
까라차이인과 체르케스인 모두 이슬람을 믿고있다.



아디게이

인구 45만 66%의 러시아인과 23%의 아디게인의
11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
아디게인들은 주로 이슬람을 믿고있다.

AWANA CLUB 가을 학기 등록 받습니다.

가을 학기: 9/9 - 12/16/09 (14 meetings)

등록 기간: 8/5/09 - 8/23/09

등록비: 1인당 \$ 30

클럽 유니폼: \$ 15 (신규 가입 / Kindergarten / 3학년)

등록처: 초등부 안내석

우편 등록:

NCFC

18901 Waring Station Rd.

Germentown, MD 20874

Attn: Awana

문의: 신율미 집사 (301-444-3100 교환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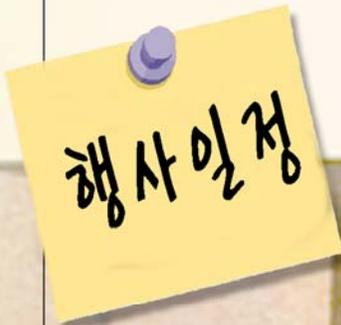
* 등록 마감일 후 등록: \$40.

맥체인 성경읽기표

8월	가 정		개 인	
1	삿15	행19	렘28	막14
2	16	20	29	15
3	17	21	30,31	16
4	18	22	32	시1,2
5	19	23	33	3,4
6	20	24	34	5,6
7	21	25	35	7,8
8	룻1	26	36,37	9
9	2	27	38	10
10	3,4	28	39	11,12
11	삼상1	롬1	40	13,14
12	2	2	41	15,16
13	3	3	42	17
14	4	4	43	18
15	5,6	5	44	19
16	7,8	6	45	20,21
17	9	7	46	22
18	10	8	47	23,24
19	11	9	48	25
20	12	10	49	26,27
21	13	11	50	28,29
22	14	12	51	30
23	15	13	52	31
24	16	14	애1	32
25	17	15	2	33
26	18	16	3	34
27	19	고전1	4	35
28	20	2	5	36
29	21,22	3	겔1	37
30	23	4	2	38
31	24	5	3	39

9월	가 정		개 인	
1	삼상25	고전6	겔4	시40,41
2	26	7	5	42,43
3	27	8	6	44
4	28	9	7	45
5	29,30	10	8	46,47
6	31	11	9	48
7	삼하1	12	10	49
8	2	13	11	50
9	3	14	12	51
10	4,5	15	13	52-54
11	6	16	14	55
12	7	고후1	15	56,57
13	8,9	2	16	58,59
14	10	3	17	60,61
15	11	4	18	62,63
16	12	5	19	64,65
17	13	6	20	66,67
18	14	7	21	68
19	15	8	22	69
20	16	9	23	70,71
21	17	10	24	72
22	18	11	25	73
23	19	12	26	74
24	20	13	27	75,76
25	21	갈1	28	77
26	22	2	29	78:1-37
27	23	3	30	78:38-72
28	24	4	31	79
29	왕상1	5	32	80
30	2	6	33	81,82

웰로쉽의 어느날



- ◆ 7월 31일(금) - 8월 2일(일)
제 9회 바이블 아카데미 (MD/VA)
- ◆ 8월 3일(월) - 7일(금)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MD)
- ◆ 8월 7일(금) - 9일(일)
한마음 여름수양회
- ◆ 8월 10일(월) - 14일(금)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VA)
- ◆ 8월 16일(일) - 19일(수)
중고등부 수양회 (MD/VA)
- ◆ 8월 22일(토)
평신도 제자훈련 센터 교사 수양회
(MD/VA)
- ◆ 8월 27일(목)
CCS Back to School (MD)
- ◆ 8월 29일(토) - 30일(일)
오이코스 인도사 수양회 KC/EC (MD/VA)

1. 버지니아 새가족 환영회가 있던 날. 새가족들에게 교역자들을 소개하던 오재현 집사. 분위기를 띄우자는 의미에서 '변사라' 전도사를 '변말자'로 소개했다. 그러자 변사라 전도사의 항변, "그렇지 않아도 '변'씨에게 시집을 가서 이름이 변 '사라', 변 '싸라'로 불리우는데 변 '말자(빛자는 의미)'가 뭘니까?" 변사라 전도사의 원래 성은 '최' 씨이다.
2. 오이코스 방학을 맞이하며 목자들에게 광고가 전달되었다. "8월 29일 토요일에는 버지니아 캠퍼스에서 인도자 교육이 있고, 8월 30일 일요일에는 게이더스버그 힐튼 호텔에서 만찬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4교구 목장 모임에서의 대화.
"만찬 참가비가 얼마예요?"
"이번에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고 호텔에 가서 직접 내는 것인가요? 워낙 공짜가 없는 웰로쉽교회잖아요."

'누가 누가 더 귀여울까?'
콘테스트 결승전!
(MD 새가족반 중에서)

